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5년 6월 발행 (제 62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프리페이퍼

나팔 HP: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권두 메시지 '주님은 도적처럼 몰래 오신다' 예레미야

◎간증 '수많은 신앙' DAIKI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권두 메시지>

'주님은 도적처럼 몰래 오신다' 예레미야

이번에는 "주님은 도둑 같이 올 것이다"며이 사건을 메시지 해 나가고 싶습니다. 텍스트는 다음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6:15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처럼 주님의 재림은 도적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의 의미를 생각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 같이 진행된다고 성경은 말씀입니다 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이 말은 수수께끼입니다. 왜냐하면 도둑의 특징은 아무도 모르게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재림의 모습은 그런 조용한 것은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씁니다.

요한복음 1:7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는 적막은 커녕 모든 눈이 재림의 주님을 볼 수 말해지고 있습니다. 전혀 조용하지 않으며, 주목도 만점입니다.

도쿄 올림픽 성화의 입장과 같은 것입니다. 한때 일본에서 올림픽의 날, 일본에서 사람의 눈이 주목하는 가운데, 성화는 국립 경기장에 도착 해 성화대에 점화했습니다. 일본의 사람들이 모두 주목하고이 것을 TV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의 눈이 볼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도 알려져 말라 도둑은 정반대의 등장 패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주목받는 주님의 재림이 도대체 왜 도둑처럼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수수께끼입니다.

<도둑 같이 올 것이다라는 표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원지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 성경은 반복해서 "도둑 같이 온다"라는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오는 것임을 말하고 싶다면, 그 밖에도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처럼 조용히 온다"라는 표현은 어떨까요? 조용하고, 그야말로 눈치 채지 좋은 표현과 생각 합니다만, 안할까요? 그러나 성경은 원지 주님의 재림에 대해 또한 주님의 날에 대해 반복, 반복, "도둑 같이 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2 주의 날이 밤에 도적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베드로후서 3: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요한복음 3: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성경은 반복 종말의 날에 대해 "도둑 같이 온다"고 말했다. 이 것은 뭔가 의미가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만 어떻습니까?

<도둑 같이 온다는 말씀의 비유>

원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쓰여진 책이며, 비록 나 수수께끼로 가득합니다.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시편 78:1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78:2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래서 성경은 종말의 날에 대해 반복, 반복 '도둑 같이 올 것'을 말하는데 뭔가 의미가 뭔가 숨겨진 수수께끼가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만 어떻습니까?

"도둑"라는 말은 성경에서, 실은 말씀을 훔치는 것에 대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23:3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처럼 성경에서 "훔쳐"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은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것과 관계가있는 것입니다. 이 이해에 따라 종말의 날에 대해 생각할 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말에 관한 말씀, 특히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날에 관한 말씀은 도난, 그리고 말씀 본래의 의미와 다른 형태로 사용된다 그 것을 암시 예언하고 "도둑"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 "말씀을 훔치는"라는 관점에 따라 다시 종말에 관한 교리를 검토하자.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볼 때, 많은 종말에 관한 말씀은 실제로 도난 있으며 변형되어 본래의 말씀과 다른 교리가 설화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조금 살펴 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는 도적 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도적처럼 재림하신다

*** 환난전휴거설**

성경 말씀이 도난되는 그 제일의 종말 교리는 소위 환난전휴거설 (2 단계 휴거설)입니다. 이 교리에 따르면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환난 전에 거론 환난은 만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난에 등 만나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웬지 상당히 머리투성이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리는 전혀 말씀과 모순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설이 교리에 대한 다음의 주의 경고의 말씀 환난의 날에 대비에게 경고의 말씀은 도난, 변조된 의미 없는 경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13 ○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주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환난 시대를 경과하는 것, 그러나 그 환난 시대 속에서 최후까지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인내자는 구원을 말한 것입니다. 종말의 날에 있어서 중요한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의 교회에서는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은 도난, 변조된 의미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에서는 "끝까지 인내 것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경고는 있지도 않은 발생도하지 경고를 말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간주되고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 도난 있습니다.

* 디스펜션주의

플리머스 부라자렌의 J.N. 더비가 제창 한 디스 펜 보호기 프로그램주의는 종말에 관한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훔치고 빼빠지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스펜션주의는 시대 구분과도 번역하는 것입니까. 즉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은 교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시대의 주역은 교회이며,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었지만, 시대가 바뀌고 종말의 시대가 되면 주역은 교체하고 다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인 유대인이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말의 시대는 유대인의 시대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의 날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환란 시대도 또한 적 그리스도의 재앙도 짐승의 나라의 재앙도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 받을 것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관계없는 라고 역설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상당히 머리 투성이, 좋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잘 검토하면 곳곳 모순 투성이의 사기 교리입니다. 별판 상법처럼 사기 이야기에서 이런 사기 이야기를 누가 믿 냐고 생각 합니다만, 상당히 속고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아아, 이런 도둑의 가르침 교회는 속지 모든 종말의 말씀은 도난 주님의 경고는 빼 떠나서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기의 가르침 종말의 환난은 기독교와는 관계가 없다고 도둑의 가르침을 유포하는 일을 예언 한 것처럼 일단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3:37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디스펜션주의는 "종말의 환난은 어떤 사람들 유대인만 받는다"고 말했다지만, 주님은 그 사이비 교리의 출현을 예견 한 것처럼, 이 말씀 속에서 종말의 경고 모든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것임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종말의 재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관련된 사함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가복음 13 장에 기록되어있는 다음의 환난 시대의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관계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마가복음 13:19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13:20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어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즉 그리스도인이 "전례 없었던 것 같은, 또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고난의 날"을 통과 때문에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러한 친절하고 자상 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은 도난 이러한 경고는 지금의 기독교에 있어, 관련이 없는 것, 의미 없는 경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세 번째 성전의 붕괴

종말의 날에 관련하여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훑치고 빠 떠나서 많은 교리가 지금 시대에 가고 걸쳐 있습니다. 그 이상한 교리의 또 하나의 예는 종말의 날에 예루살렘에 세 번째 성전이 건설된 후 붕괴 할 것이라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도 위 디스펜 보호기 프로그램주의에 의해 촉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훑치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훑치고 경고를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조금 살펴 보자.

주님은 종말에 관한 일련의 경고의 말씀을 말하시기 전에, 성전이 무너질 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4:2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성전의 붕괴 예언은 말하자면 두 배의 예언이며, 2 회에 걸쳐 성취합니다. 1 번째 성취는 AD70 년으로 그날 예루살렘은 로마 군에 둘러싸여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로마에 의해 붕괴되었습니다. 왜? 그 이유는 그들이 구약의 유다 사람들의 배신 때문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도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첫 강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보답으로 로마에 의해 공격을 받아 성전은 붕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의 종말에 일어난 성전의 붕괴는 다시 교회 시대의 끝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의 종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재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의 끝에 다시 일어날 성전의 붕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2,3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현재 예루살렘에는 또 물리적 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 성전은 이미 붕괴하고 있으며, 현재는 기둥도 지붕도 무엇 하나 남아 있지 않은, 그래서 다시 궁을 붕괴시키는 것 등 할 수 없다는 당연한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진으로 붕괴 해 버린 전신주 이미 쓰러져있는 전신주를 다시 이길 무리입니다. 이미 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애매한 말을 무리를 말하고 다시 세우고 조용히 패배라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전봇대가 이미 철거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쓰러져 붕괴뿐만 아니라 궁 자체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집이 붕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건설 장소입니다. 궁 어디서나 세우면 된다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히 성전 건축의 장소가 지정되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성전이 세워진 것이다 장소,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입니다. 다른 곳이 아닌 이곳 밖에 없습니다.

또한 또 다른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장소, 여기 밖에 없다고 정해진 모리아산에는 이미 이슬람교 성전이 서 있으며, 새로운 성전을 지을 공간 등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게다가 그 이슬람 사원은 이슬람교의 삼대 성지의 하나이며, 많은 이슬람 순례 해오고 있으며, 그 장소가 빈 공터가 되어 솔로몬의 성전이 다시 세우는 가능성 등 만 하나도 없다. 이와 같이, 종말의 날에 물리적 궁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굳이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성전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건설도 불가능하다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주로 물리적 인 성전에 눈을 돌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전의 붕괴에 관한 비유의 의미에 눈을

돌리게 말씀대로 생각 합시다만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실제 건물 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다음의 말씀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서는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임을 성전의 기초석은 사도들과 선지자임을 또한 그리스도께서 초석임을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예언 된 종말의 성전의 붕괴는 다름 아닌 주님의 몸인 교회 붕괴의 예언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고, 즉 교회의 토대가 되는 교리의 붕괴, 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더욱 구석의 초석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마저 교회에서 거두면 된다는 철저한 교회 파괴 날의 예언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날 교회가 무너지고 토대가 붕괴하는 날 등 바람직하게는 아니지만, 중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 보아 왔듯,이 것은 종말에 관한 다른 말씀과 일치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종말의 날 성전의 붕괴의 날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붕괴하는 날을 경고하는 예언을 말한 것입니다만, 아아, 이 경고의 말씀은 도난 아무런 경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의 세 번째 성전 건축 이니 물리적 인 것에 자극을 받았다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려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말씀은 도난당한 것 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날 도둑에 보금자리가 교회의 소중한 말씀과 교리를 훔친 날을 예언 한 것처럼 일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43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현재 이 말씀은 성취하고 하나님의 집 교회에 도둑 침범 소중한 종말의 말씀은 아무도 이것도 도난 버린 것 같다. 그러나 제대로 말씀으로 돌아가 진리에 立ち戻る 사람에게 뜻이 있음을 알아 봅시다.



모리아산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 및 신자

'수많은 신앙' DAIKI

여러분은 기독교 서점에 갈 수 있던 것은 있을까요? 거기에는 성경, 또한 수많은 신앙 서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설명하는 '주석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설명서, 주석서는 사람의 손이 더해진 책입니다. 아니, '사람'이 그 책의 저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가려고 경우에는 순수한 "성경"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만이 하나님께 영감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만이 하나님 자신이 원작자입니다. 오늘 상당히 미친 교회 많으면 성경이 반드시 사용된다.

새로운 신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정말 조심하십시오. 미친 교회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성경 이외의 책이나 인물에 두고 있는 목사가 있는 교회에 가지마십시오. 만약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빠져 나와 다른 교회를 찾아보십시오. 지금은 힘든 시대입니다.

저도 믿음을 잃었을 때 기독교 서점에 가서 다양한 신앙 서적을 사 모아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앙 생활의 지침을 담은 책, 기도에 대해 쓰여진 책 사탄과 악령에 대처하기 위한 책(사탄과 악령은 인간보다 훨씬 강하고 현명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사람이 쓴 책 같은 건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 쓰여진 책 교리에 관한 책. 동안 읽는 사람을 성경으로 이끄는 책도 있었습니다만,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책은 저자의 성경 해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

많은 패턴이 저자 자신의 주장이 있고,이 책을 읽음으로써 신앙의 고민은 더 깊어 버렸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약간의 책을 남겨 성경 이외의 신앙 서적을 거의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것은 성령의 인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인터넷에서 신앙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사이에 "나팔" "예레미야의 방"이라는 사이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실을 여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의 시대, 미국을 기점으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도량 발호하고 있으며, 그 사람들이 성회를 열고 다양한 신앙 서적 등을 써 많은 기독교인을 속여 미혹하는 것입니다. 동안 기독교를 가장 사탄 숭배자 (악마 숭배자)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교리를 제대로 믿는다면 그야말로 멸망하고 맙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던 마법의 지침서 해리 포터

그들의 가르침은 너무 성공적이고 사악한 것입니다. 또한, 그야말로 올바른 가르침을 보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조차도 그들의 함정에 빠져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본 그리스도 교회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탄조차도 빛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있지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어떻게 든 방향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성경 만이 진정으로 믿어야만 되는 책이라는 것을 몸으로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마음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쓰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며,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로 읽어야 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을 버릴 가능성조차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바로 말씀 하나님이며,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하게 살아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해, 주석서와 신앙 서적에 관해서는, 인간의 현명함마저 느낍니다. 또한 악령의 율법이 섞여있는 경우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건전한 가르침을 견딜 어렵고, 공상 이야기로 빠져 나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 기독교 서점에서 해리 포터와 나니아연대기 등의 책과 DVD 등이 판매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환란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조심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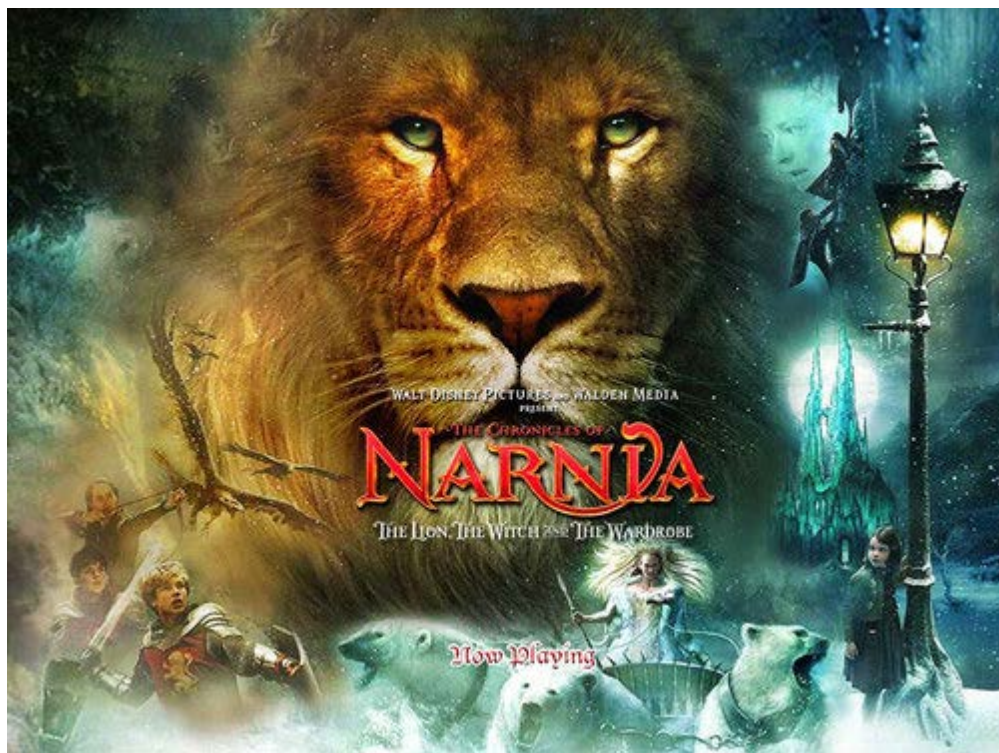
종말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보지 않고 환란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휴거되어 그 시대가 끝나면 다시 이 땅에 내려올는 빈틈없는 가르침을 설

어져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레프트 비하인드'입니다. 이 이야기의 제작에도 사탄 숭배자와 통일교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 교리를 받아 들였다 있습니다. 천국의 문은 그러한 의미에서도 좁습니다. 역시 성경 이야말로 건전한 가르침이며, 제대로 읽으면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종말의 날의 환란 시련은 반드시 수 있습니다.

여하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옳은지 성령이 반드시 이끌어 가르쳐 주 십니다.

- 이상 -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던 나니아연대기